

# 조선반 학습 계획 5 월 30 일

교재 : 한국어 6-1

교육 목표 : 한글학습 활동을 통하여 말하기,듣기,쓰기,읽기 네영역을 골고루 사용하여  
한국어 의사 소통과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시	수업내용	교재 및 자료
1 교시	새로운 단어 배우고 연습하기 장한나 인터뷰 기사 읽고 문제풀기	한국어 6-1
2 교시	조형물 프리젠테이션 - 4 명 학생 인터뷰에서 많이 쓰는 질문 만들어보기	숙제 읽기 교재
	역사 수업 - 조선시대 인물에 대한 작문 수업 조선 후기 한글 소설 소개하기- 춘향전 구운몽	영상보기

**좋아하는 조형물 발표**

**5 월 30 일 발표 :** 김유진,김윤서,정필립,정다인

**6 월 6 일 발표 :** 나머지 모든 학생들

숙제

일기 1 장 이상 써오기, 어휘 연습해서 받아쓰기 준비하기

사이트에 있는 숙제물을 풀어오기

강승연 [shuen98@hotmail.com](mailto:shuen98@hotmail.com)

Tel: 2014500665

다음 어휘들을 3 번 읽고 써본다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연합 관현악단

전원 일치

전기문

사회 공헌

대중 문화

노력이 담긴 명언

심사위원

깜짝 변신

어려운 상황

발이 기형이었지만

인터뷰 관련 표현

감상문



# 1.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해 보십시오.

1)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

2)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3) 그 중에서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4)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

6)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

7)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

8) 인터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 다음 (보기)처럼 제시한 낱말들을 모두 포함하는 낱말을 써 보세요.

(보기)

사람 · 고래 · 수달 → 포유동물

1. 사과, 바나나, 배 → \_\_\_\_\_
2. 배, 자동차, 비행기, 버스 → \_\_\_\_\_
3. 장미, 봉선화, 진달래, 국화 → \_\_\_\_\_
4. 주스, 사이다, 식혜, 콜라 → \_\_\_\_\_
5. 농구, 씨름, 축구, 유도 → \_\_\_\_\_
6. 지우개, 연필, 공책 → \_\_\_\_\_
7. 소아과, 내과, 안과 → \_\_\_\_\_
8. 배추, 상추, 토마토, 쪽갓 → \_\_\_\_\_
9. 구두, 샌달, 운동화 → \_\_\_\_\_
10. 코끼리, 사슴, 악어, 토끼, 곰 → \_\_\_\_\_

## 조선반 독해 연습 문제

생활문 - 송아지 쌍둥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송아지 쌍둥이 ㉠

내가 아홉 살이 되던 해였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우리 집은 대부분의 시골 집들이 그렇듯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살림살이에 도 ㉠불구하고 큰맘 먹고 어린 암소를 한 마리 사 오셨다. 그 암소는 온 식구들의 관심 속에서 원래 있던 황소 한 마리와 함께 무럭무럭 잘 자랐다. 내 동생은 특히 새로 사온 암소를 좋아했다.

동생은 아침에 학교를 갈 때마다 암소에게 인사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암소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 난 지금 학교에 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있어.”

“암소야, 나 학교 갔다 왔어. 심심하지 않았니?”

동생은 암소가 무척 좋은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에게 ㉡행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조마조마해 하셨다. 하지만 암소는 아무 탈없이 쑥쑥 자라나 어느덧 뱃속에 ㉢새끼를 갖게 되었다. 어머니는 ㉣암소가 우리 집 살림을 늘려줄 거라며 좋아하셨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그 말은 암소가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는 뜻이었다.

## 조선반 독해 연습 문제

1. 언제 있었던 일을 글감으로 썼나요?

- ① 이틀 전      ② 일주일 전      ③ 아홉 살 때      ④ 1학년 때

2. 다음 중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 ① 글쓴이는 시골에 살았다.  
② 글쓴이네 집에선 어린 암소를 키웠다.  
③ 글쓴이는 황소를 갖고 싶어했다.  
④ 동생은 암소를 좋아했다.

3. ㉠과 같은 의미로 쓰인 낱말은 무엇인가요?

- ①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었다.  
② 배가 고프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다.  
③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불구가 된다.  
④ 신체적 불구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4. ㉡ '행여'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모두 고르세요.

- ① 혹시      ② 어쩌다가라도      ③ 하필이면      ④ 어떻게

5. ㉢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① 망아지      ② 송아지      ③ 병아리      ④ 강아지

6. ㉣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가요?



## 조선반 독해 연습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송아지 쌍둥이 ②

새 송아지가 태어나던 날,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 코, 입 모두 쪽 빼닮은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던 것이다. 어미 소가 사랑스런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두 송아지는 머리를 부딪히며 싸우는가 하면 어느새 서로 코를 마주 대고 다정한 모습으로 잠들곤 했다.

동생은 전보다 더 암소와 송아지에게 자주 왔다갔다 했다. 학교 갔다와서 가방을 놓자마자 친구들과 놀러 나가던 녀석이 송아지에게 먹이를 갖다주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

동생은 송아지 쌍둥이에게 이름도 지어 주었다.

“음, 애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형이지. 애는 눈이 졸립게 생겼으니까 ‘조리’라고 부르고, 애는 눈이 형보다 크니까 ‘왕눈이’라고 불러야지.”

나는 동생이 송아지 쌍둥이의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갑자기 ㉠목돈을 들여야 할 일이 생겼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은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슬픈 마음을 애써 감추며 소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셨다. 발육 상태가 더 좋은 둘째 ‘왕눈이’를 데려가기로 하셨다. 동생은 아버지가 밋다고 집에서 뛰쳐나가며 마구 울었다.

아버지는 동생을 그냥두라고 하셨다. 아버지도 많이 슬프셨던 것 같았다.

## 조선반 독해 연습 문제

1. 송아지가 태어나던 날 가족들이 놀란 까닭은 무엇인가요?



2.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낱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애는 눈이 줄립게 생겼으니까 (        )라고 부르고, 애는 눈이  
형보다 크니까 (        )라고 불러야지.

- |           |           |
|-----------|-----------|
| ① 조리, 왕눈이 | ② 왕눈이, 조리 |
| ③ 조리, 큰눈이 | ④ 줄이, 왕눈이 |

3. ㉠과 같은 의미의 낱말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 ① 적은 돈    ② 주운 돈    ③ 많은 돈    ④ 갚을 돈

4. 둘째 왕눈이 송아지를 먼저 내다 팔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발육상태가 좋지 않아서
- ② 발육상태가 더 좋아서
- ③ 쌍둥이 형제를 자꾸만 괴롭혀서
- ④ 우리에서 뛰쳐나오며 말썽을 일으켜서

5. 둘째 왕눈이를 팔게 되자 동생이 한 행동이 아닌 것은?

- ① 아버지를 미워했다.
- ② 왕눈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 ③ 집에서 뛰쳐 나갔다.
- ④ 마구 울었다.

## 서울의 궁궐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조선 시대의 궁궐은 모두 다섯 곳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다.

### 궁궐의 건물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족과 관리, 군인, 내시, 나인 등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하였고, 건물의 명칭 또한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예컨대, 궁궐에는 강녕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 자가 붙은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 수 있었다, 왕실의 가족이나 후궁들은 주루 '전' 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당' 자가 붙는 건물을 사용하였다. 그 밖의 궁궐 사람들은 '각', '재', '헌'이 붙은 건물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왕도 '전'이 아닌 다른 건물을 사용하였다.

### 경복궁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라는 뜻을 가진 경복궁은 조선 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세운 조선의 법궁이다.

경복궁은 7600 여 칸의 건물을 지닌 어마어마한 궁궐이다. 이러한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라는 뜻을 가진 근정전이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 등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경복궁에서 안쪽에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다. 교태전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아미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다.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을 가진 경희루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장소이다.

법궁: 나라의 공식적인 궁궐.

즉위식: 임금 자리에 오르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치르는 의식.

### 창덕궁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고 하여,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도 불렸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진 창덕궁은 유네스코에 세계 유산으로 기록된 아름다운 궁궐이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된 건물이 인상적이다. 넓은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하여,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 하늘을 뜻하는 둥근 섬을 띄워 놓은 형태이다. 연못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 부용정은 십자 모양의 정자로, 화려한 단청와 처마 끝의 곡선이 무척이나 아름답다.